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의  
1965~1975년도 외교관계 연구

- 한국의 주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South Vietnam and  
South Korea Relations (1965~1975)**

**- Focusing on the South Korea's Initiative -**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보 티 칸 란

# **A Research on South Vietnam and South Korea Relations (1965~1975)**

**- Focusing on the South Korea's Initiative -**

**A Thesis Presented**

**By**

**VO THI KHANH LAN**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February 2018**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의  
1965~1975년도 외교관계 연구  
- 한국의 주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한 정 훈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0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보 티 칸 란

보티칸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박 태 균	(인)
부 위 원 장	한 영 혜	(인)
위 원	한 정 훈	(인)

# **A Research on South Vietnam and South Korea Relations (1965~1975)**

**- Focusing on the South Korea's Initiative -**

**Professor Jeong Hun Han**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October 2017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Vo Thi Khanh La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Vo Thi Khanh Lan

December 2017

**Chair**                      **Tae Gyun Park**                      (Seal)

**Vice Chair**                      **Young Hae Han**                      (Seal)

**Advisor**                      **Jeong Hun Han**                      (Seal)

**© Copyrights 2017 by Vo Thi Khanh Lan**

**All Rights Reserved**

< 국문 초록 >

#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의 1965~1975년도 외교관계 연구

- 한국의 주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보 티 칸 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논문은 1965~1975년도 한국과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의 외교관계를 연구했으며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체와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많이 연구되었던 베트남 전쟁과 강대국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바라보았던 양국관계 아닌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과 남베트남의 군사,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양국의 사회·경제적 협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은 한-남베트남 관계를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전, 한-남베트남의 밀월관계,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후의 양국 외교관계 시기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한국은 남베트남과의 상당한 교류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승만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한국과 남베트남은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밀월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단순히 미국 주재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동맹관계를 통한 경제적 이익추구에 집중하였다. 특히 1965년~1972년 시기 한-남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정책들은 매우 일관성이 있다. 당시 미국이라는 게이트로 외교정책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한국은 이를 통해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 또한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는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인하여 단교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미국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요어 :** 남베트남,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 외교관계, 한국-남베트남 관계, 베트남전쟁, 냉전체제.

**학 번 :** 2015-25119



# 목차

<b>1. 서론 .....</b>	<b>1</b>
1.1 연구의 목적.....	1
1.2 기존 연구 검토.....	5
1.3 접근 자료 및 연구 방법.....	9
 <b>2. 한국군 베트남 파병 이전의 한국-베트남 관계.....</b>	<b>13</b>
 <b>3. 1965~1972 년 한-남베트남 밀월관계 .....</b>	<b>29</b>
3.1 한-남베트남 관계의 군사-정치적 측면 .....	29
3.2 한-남베트남 관계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33
3.2.1 경제 측면.....	33
3.2.2 사회-문화 교류 측면 .....	38
 <b>4. 1973~1975 년 한-남베트남 외교관계의 말엽 .....</b>	<b>48</b>
4.1 한국 철군 이후 한-남베트남 관계 .....	48
4.2 그 이후 한국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책 .....	52
 <b>5. 결론 .....</b>	<b>62</b>
 <b>참고문헌.....</b>	<b>66</b>
 <b>Abstract .....</b>	<b>73</b>

# 1.서론

## 1.1 연구의 목적

2017 년 9 월 17 일 미국인 Ken Burns 와 Lynn Novick 감독이 장장 10 년에 걸쳐 제작한 “The Vietnam War”이란 다큐멘터리가 PBS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 18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당시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인 미국 군인, 남베트남 군인과 북베트남 군인 총 79 명을 인터뷰하여 전쟁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다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베트남, 그리고 참전국들은 여러가지 큰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지 40 여년이 지나서야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되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접근할 때 베트남 전쟁 시기 일어났던 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과 남베트남 관계가 전쟁만큼 큰 영향력과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과 한국은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통일된 지 17 년이 지난 1992 년에서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였다. 양국 수교 25 년을 맞은 지금 양국 관계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베트남의 많은 학자들도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오랜기간동안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 시기는 오늘날 외교적 관계뿐이었으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베트남공화국 (이하 한-남베트남 관계로 지칭)관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공화국을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나 모든 공식적 문서들은 미국의 “괴뢰정권”<sup>1</sup>이란 뜻으로 지칭하고, 최근 “베트남 역사” 책의 제 1 회 교정판에서는 “베트남공화 정권”이라고 변칭하여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을 뿐 베트남공화국이라는 명칭은 금기어로 간주된다. 이에 관하여 2017 년 8 월 베트남 국내의 유명한 “Tuoi Tre” 일보에 베트남역사원장 짬득꾸엥 (Tran Duc Cuong) 박사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Chính quyền Việt Nam Cộng Hoà là một thực thể ở miền Nam Việt Nam. Nó tồn tại trong gần 21 năm. Năm 1954 còn có một thể chế nữa gọi là Quốc gia Việt Nam. Sau đó đến năm 1955 thì Ngô Đình Diệm mới phế Bảo Đại để làm quốc trưởng, sau đó trưng cầu dân ý, bầu Tổng thống.”<sup>2</sup>

(베트남공화국 정권은 베트남의 남부에 있었던 실체이다. 이 실체는 21 년 가까이 존재했다. 1954 년에는 “베트남 국가”란 체제가 더 있었다.

---

<sup>1</sup> 베트남어로 “Ngụy”라고 한다.

<sup>2</sup> Tran Duc Cuong. 2017. Tuoitre online, August 18, 2017.

<http://tuoitre.vn/tu-bo-cach-goi-nguy-quyen-quyen-sai-gon-1371412.htm>.

1955 년까지 응오딘지엠<sup>3</sup>이 바오다이<sup>4</sup>를 폐하고 자신을 “국장”<sup>5</sup>으로 칭한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선거를 진행했던 것이다.)

근 42 년 동안 (1975~2017 년) 베트남공화국의 외교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베트남 국내 학자들들도 이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남베트남 정부 자료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이 주제를 연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역사원장이 베트남공화국을 베트남 역사의 실체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남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전쟁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박태균 교수는 그의 저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수 이후 한국군은 계속하여 베트남에 주둔하여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였음을 언급한다. 또한, 1964 년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한 것이 미국이 아닌 남베트남 정부였다는 사실도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병 요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남베트남 사이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는 1970 년대 초반 미국이

---

<sup>3</sup> 응오딘지엠 (Ngô Đình Diệm)은 1955 년 10 월 26 일~1963 년 11 월 2 일에 남베트남의 제 1 대 대통령이다.

<sup>4</sup> 바오다이 (Bảo Đại)는 베트남 제국 응우옌 (Nguyễn) 왕조의 마지막 황제이며 1949~1955 년에 베트남국 국장을 취임하였다.

<sup>5</sup> 영어로 ‘Head of state’를 의미한다.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더  
주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점이 남베트남 정부의 입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이라는 게이트로 외교정책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한국이<sup>6</sup>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우위적 대베트남 정책들을 매우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 한국은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이 한국의 대베트남 외교정책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1965~1975년까지 Nguyen Van Thieu (응웬반티우) 대통령<sup>7</sup>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관계가 단순히 미국의 주재하에서 이루어진 관계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이어진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에 따라 형성된 관계인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박정희 정부 외교정책의 실체와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남베트남 간 외교관계에 한국의 주도적 측면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하여 당시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의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

<sup>6</sup>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8 월, pp. 138~139.

<sup>7</sup> Nguyen Van Thieu (응웬반티우)는 1967 년 9 월 3 일~1975 년 4 월 21 일에  
남베트남의 제 9 대 대통령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그동안 많은 제약들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많이 연구되지 못했던 한-남베트남 관계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며, 한-남베트남 관계 연구를 통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의 외교정책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 1.2 기존 연구 검토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연구들은 1992년 수교 이후 한국-베트남 관계가 대부분이다. 반면 1965~1975년 한-남베트남 관계에 관한 기존연구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전술대로 이 시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 군사지원의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파병 전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65~1975년에 한-남베트남 관계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

“한국의 베트남 연구”에 따른 한국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6~2012년 동안 정치, 법, 국제관계 군사 분야에 관한 연구가 모두 127편이다. 이는 총 983개 “한국의 베트남 연구” 실적의 12.9%만 차지하였다 (이한우, 2013, 117). 또한 대부분의 연구 분야가 역사, 경제, 경영, 사회 순위로 나타나면서 한국-베트남 외교관계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좀 더 폭넓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송정남은

『베트남 탐구』(2015)의 제 6 장 “외교”에서 한국-베트남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현대 이후 베트남과 한국 간의 첫 관계는 이념에 좌우되었다... 북한과 북베트남과의 수교는 1950 년에 이루어졌다. 이듬해 5 월 한국-남베트남 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사이공에 공사관을 설치했다. 그 후 한국과 남베트남 간의 관계는 급진전하여 1957 년 응오 딩젬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이듬해 이승만 대통령의 답방이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답방했던 1958 년 사이공에 한국대사관이 설치되었다...”(송정남, 2015, 159).

안타깝게도 위 자료는 본고의 대상 시기를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노력에만 그쳤다.

베트남에는 특별한 사례로 한국인이 베트남어로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이 하나 있다. 구수정의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역사학과 박사논문 “미국의 베트남 전쟁 시기 및 그 후의 한-베 관계 (1955~2005)”라는 연구이다. 구수정은 1999 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배상 요구를 목적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을 이끌어 왔다. 구수정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1955~2005 년에 양국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반공주의 또는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50~60 년대 관계를 설명하였다.

“...Quan hệ giữa hai nước Việt Nam Cộng Hòa và Đại Hàn Dân Quốc cùng đặt cơ sở trên chủ nghĩa chống Cộng (Anti-Communism) và trên sự viện trợ nhiều mặt của Mỹ nên ngay từ đầu đã tỏ ra rất khăng khít...”<sup>8</sup>

(베트남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반공주의(Anti-Communism)와 미국의 다면적 지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긴밀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위 연구는 1955~2005 년 시기 양국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베트남전쟁의 시기를 주로 분석하였다. 구수정은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를 반공주의와 미국의 지원아래 이루어진 관계라고 분석하지만 당시 한국-남베트남 관계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1960~1970 년대 양국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박태균<sup>9</sup> 교수의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논문에서 언급된 박정희 대통령의 대외 인식과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서 한국 대외정책이 한-남베트남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정희의 구상은 이승만의 구상과 함께 당시 한반도의 특수 구조적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정책들에 대하여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박태균, 2015, 11). 이를 계기로 당시 미국과의 불균형 외교관계에 대한 불만이 많은 박정희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에 갖고자 하였다. 이승만 정부때는

---

<sup>8</sup> 구수정. 2008. “Mố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 (1955~2005)”, (미국의 베트남전쟁 시기 및 그후에 한-베 관계 (1955~2005)). 69 쪽.

<sup>9</sup>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박정희 시기에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시도하였던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남베트남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베트남전”, “베트남 파병”, “월-미 관계”, “한-미 관계” 등의 주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양한 연구들을 찾을 수 없다.

둘째, 베트남에서 근 42 년 동안에 실제로 인정받지 못했던 베트남공화국의 외교관계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학자들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셋째, 전쟁 후 베트남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에 남베트남 우파 정부의 자료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비공개 자료로 보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의 국내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은 제한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정치에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예민하고 접근하기 힘든 대상이다.

이러한 세 가지 한계로 인하여 한-남베트남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도 전무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 역사를 정치에서 떠나 역사 그대로 바라보자는 분위기가 환기되면서 그동안 제한이 많았던

남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대로 최근 베트남 역사원장의 공식 발언과 구수정의 박사학위 논문은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더 나아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1965~1975년) 대한민국과 남베트남의 외교관계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살펴보고 당시 박정희 정부 외교정책의 성격과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 1.3 접근 자료 및 연구 방법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 1964년 7월부터 1975년 말까지 만들어진 109건의 남베트남 관계에 관련 기록 문서들이 2014년 공개되었다<sup>10</sup>. 이 문서들의 내용을 검토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남베트남 관계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보다 더 많은 문서들이 연전이 비공개로 보관되고 있어 선불리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참전국들은 1967년-1971년 동안에 매년 외상회의를 총 5번 개최하였는데 공개된 문서는 제2차 (1968년)과 제3차 (1969년) 회의 문서밖에 없다. 공개된 기록 문서들과 함께 본 논문은 당시 양국이 서명하였던 공동성명, 회담, 협의문서, 경제-사회 협력 원문 자료들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실증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추진한다.

---

<sup>10</sup> 대통령기록관. 2014. <http://pa.go.kr>.

베트남에 있는 자료로는 1967~1972 년간에 남베트남에서 출간된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sup>11</sup>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현재 원문은 호치민 중앙 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다. 대한뉴스는 베트남공화국 시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즉 남베트남에서 한국의 봉사 활동 및 우호 관계에 관한 내용을 신문 기사로 홍보하였던 것이다. 대한뉴스뿐 만 아니라 다른 남베트남 신문도 당시 한-남베트남 밀월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경제 및 사회 교류 활동,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남베트남 신문에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국이 대베트남 경제-사회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역사적 접근방법 (Historical Approach)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한-남베트남 외교관계의 시간적 과거 사료를 중심으로 한 외교사적 연구방법이다. 그리고 이론적 접근방법 (Theoretical Approach)을 동시 진행하면서 사건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한국의 주도적 외교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된 정보들을 실질적 분석함과 재쟁점화를 통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남베트남과 군사동맹을 맺고 그 외에 어떠한 교류나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sup>11</sup>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1972 년 간에 남베트남에서 출간된 특집판 신문이다. 현재 이 신문은 호치민 중앙 도서관에서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남베트남 관계는 한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관계이며 군사지원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개입없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우호 관계였다고 한다면 본고는 그 연구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남베트남의 1965~1972 년에 밀월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2 장에서는 한국군 베트남 파병 이전의 관계를 살펴보며 당시 군사·경제적 교류 실적을 밝힘으로써 양국의 외교관계는 미국 주재하에 형성된 관계인지를 재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2 장의 밝힌 점을 바탕으로 3 장에서는 한국군 참전 시기에 한-남베트남 사이에 한국의 주도적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양국의 밀월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2 장에서 양국의 외교관계가 미국 주재하에 형성된 관계인지를 재검토할 때 한국이 능동적으로 남베트남과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 증명이 된다면 한-남베트남의 관계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주체가 되어 주도한 능동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먼저 시작하였다 하여 한국이 한-남베트남 관계에 주도 역할을 했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3 장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대베트남 정책을 추진하였고, 양국의 밀월 관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 바탕으로 한-남베트남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과연 주도적이었는지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남베트남 관계의 변화 흐름 중 중요한 1973~1975 년 말엽 시기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4 장에서 밝히도록 한다. 특히 한국은 외교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주도적 역할을 대베트남 정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시도하였는데 1975 년 4 월 30 일 남베트남 패망 그 이후에 한국이 동남아시아 외교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같이 검토할 것이다. 당시 한국의 외교정책의 성과와 그 한계를 오늘날과 연결하여 결론적으로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전의 한국-베트남

### 관계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에 놓인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다. 인도차이나반도에 위치한 베트남은 승전국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었으나 독립운동을 진행하여 1945 년 9 월 2 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1954 년 후 북베트남)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어 프랑스 패전 직후 조인된 1954 년 제네바 협정<sup>12</sup>에서 1956 년 7 월 베트남 전국 총선거를 치르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1955 년 10 월 26 일 미국 지지로 남위 17 도선 지역에서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 응오딘지엠은 남베트남 정부의 제 1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54 년 프랑스의 패전을 계기로 베트남에 개입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이 17 도선 경계로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시킨 것이다. 냉전체제로 인한 분극의 양상으로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그리고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남북분단이 지속되었다.

유럽 식민지를 경험한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1945 년에 해방되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은 1945 년

---

<sup>12</sup> 제네바 협정은 (1954 년 4 월 26 일~7 월 21 일) 한국의 재통일과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평화 유지에 대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9 월 8 일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1948 년 38 도선 이남 지역에서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엔 승인안에 따르면 1948 년 5 월 10 일에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이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으나 1948 년 9 월 9 일에 한반도 38 도선 이북 지역에서도 소련이 지지하는 좌파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sup>13</sup> 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은 냉전체제 하에 다른 이념으로 인하여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가 세워지고 분단되는 경험을 하였다. 서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국과 베트남공화국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1955 년 10 월 26 일 응오딘지엠 대통령 취임 후 바로 다음 날인 1955 년 10 월 27 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에 외교관계를 제안하였다. 1956 년에 양국에 각각 공사관을 개설하였고 2 년 후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 (송정남, 2015, 159). 그러므로 양국의 외교관계는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는 아래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sup>13</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1948 년 9 월 9 일에 한반도의 북위 38 도 이북 지역에서 수립된 정부이다.

“It seems extremely pathetic to observe how the U.S. has been and still is endeavoring vainly to bring the free nations together in an effort to form an alliance or an organization in Europe, Asia and elsewhere. Many proposals have been made by the State Department including NEATO and recently other proposals have been quite frequently reported by so far there has been no result...”<sup>14</sup>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동맹이나 기구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 국가들을 통합하기 위해 헛되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그야말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동북아시아조약기구(NEATO)<sup>15</sup>를 포함하여 미국 국무부에서 많은 제안서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기타 여러 제안서들이 아주 빈번하게 보고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연구실, 1957]

이상의 문서를 본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가 추천하는 동북아시아 조약기구(NEATO) 또는 다른 조약기구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57 년에 개최된 첫 번째 “한-월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본 무역 관계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베트남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반공 군사연맹 수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

<sup>14</sup> 이승만. 1957. “미국의 대공산-대일정책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연구실.

<http://pa.go.kr/research/contents/letter/index.jsp?leMode=view&letterId=186>.

<sup>15</sup> NEATO: Nor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60 년대 초반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조약기구의 수립을 추진했다.



1954 년 제네바 협약 제 19 조에 의하면 당시 남베트남은 어떠한 군사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고 또한 SEATO<sup>16</sup>에 반공 군사 동맹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므로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최상수, 1966, 174).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역 안보공동체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이승만 정부의 제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유럽과 달리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까지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전쟁”과 같이 그 어떠한 문제에 다시 깊숙이 개입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면전과 같이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었다. 이승만의 미국 제안에 대한 비난과 다른 국가와 동등한 군사연맹(한국-대만-남베트남)을 만들고자 추진했던 한국정부의 정책은 한-남베트남 관계가 단순히 미국의 주재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이를테면 당시 한-남베트남 관계 형성 요인에 대해서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분단과 반공주의를 포함한 객관적인 역사적 배경이다. 1957 년 9 월 19 일 이승만 대통령과 응오딘지엠 대통령의 환영만찬회 담화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아래 인용문과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양국의 역사적 유사한 점들을 언급하고 나서 한국과 남베트남의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

<sup>16</sup> SEATO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는 호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미국 8 개국에 의해 1954 년 9 월 8 일에 수립된 반공 군사 동맹이다.

“...우리는 월남과 한국이 매우 흡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 같이 오랜 문화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다 같이 전략적인 입지조건에 놓여있어 각기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처해 있으며 근대 식민국가들의 지배를 받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산압제에 반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되며 자유의 깃발 밑에 국토를 통일하려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민은 이와 같이 견고히 결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오늘날 문화통상 및 군사계획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극히 긴밀한 협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sup>17</sup>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둘째는 주관적 요인으로 양측의 외교정책 등을 포함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객관적 요인을 원인이라면 주관적 요인은 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57년 9월 20일 주한 베트남공화국 대사관 초대 만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내용으로 답사하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싸워야 하며 또 어떻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

<sup>17</sup>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대통령기록관.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11244](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11244).

우리의 단결은 자유국민들의 자유와 염원을 위협하는 공산당의 흥모를  
우리보다 덜 이해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18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위 내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남베트남 양국이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였다. 즉 반공주의가 양국 관계를 연결해 준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또한, 1950 년대에 한국-남베트남 관계에 있었던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승만 정부의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파병 제안이었다. 당시 미국은 막대한 한국군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을 모두 감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을 해외 파병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상의 담화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한국과 남베트남 “우리들의 의무”라는 표현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 명분을 앞세운 한국은 1954 년에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1958 년에 인도네시아에 한국군 파병을 제안하였고 1959 년 라오스 내전까지 개입할 의사도 표시하였다 (박태균, 2015, 25).

이승만 정부는 외교 노선을 다변화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을 제외한 것이었으며 이 구상을 현실화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

---

<sup>18</sup>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3, 공보실, 1959. 대통령기록관.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cle=1311245](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cle=1311245).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본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비판이 여전하여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국도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시기에 좌초된 지역 안보공동체와 인도차이나 파병 제안을 현실로 옮기면서 안전보장 공동체제를 추진하여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발표한 “시정방침”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거센 물결과 같이 흠뻑거리는 내외정세에 발맞추어 따라갈 수 있는 외교체제를 완전히 갖추어서 우리도 능히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터전을 뚜렷이 세울 것이며**, 지난날 모양 갖추지 못한 갈팡질팡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특히 유엔 및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19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국민의 길: 1962 년도 시정방침”, 공보부, 1962].

---

<sup>19</sup> “혁명과업완수를 위한 지도자의 길, 국민의 길: 1962 년도 시정방침”, 공보부, 1962, pp.23.

위의 인용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외교”란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의 자주외교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공산주의 나라가 아닌 국가들에” 외교 노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언급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대상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다. (박태균, 2010, 15). 무엇보다 이러한 외교 노선 다변화 또는 자주외교는 한국 국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방안이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에 대일 정책에 대한 자주정신을 강조했고 아울러 한국이 아시아에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였다<sup>20</sup>.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일본 조일신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아시아의 새로운 국면을 장기적 시야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였다.

“...아스팍-마닐라정성회담 등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제국이 보다 긴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제국 간에는 근래 이 지역의 침략세력의 존재에 대한 인식,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불가분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공동운명의식과 자주적인 지역방위의식이 제고되었다**고 보는데, 지역 제국은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마닐라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안전-질서 및 진보의 지역을 건설하기 위하여 **평등한**

---

<sup>20</sup> “한일회담 타결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2 집 6 월편/ 대통령비서실, 1965.6.23.

협동자로서 상호협력을 나감으로써, 번영하는 새로운 태평양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내 자유국가들이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역적 책임을 완수해 나가기 바랍니다.”<sup>21</sup>

[박정희대통령설문집 제 4 집 6 월 편/ 대통령비서실, 1967].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베트남은 당연히 한국이 책임지고 있는 지역적 범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당시 한국이 갖고 있는 대베트남 외교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체제에 대한 뚜렷한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 또는 대베트남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국의 단독적 정책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한-남베트남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현실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여기서 미국이 한국에게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기 전 한국과 베트남공화국과의 군사활동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또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1962 년 5 월에 박정희 정부는 15 명의 사관을 포함한 교관단을 남베트남으로 파견한 일이 있었다. 이 교관단은 외교적

---

<sup>21</sup> “일본조일 신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박정희대통령설문집 제 4 집 6 월편/ 대통령비서실, 1967.6.29.

명분으로 파견되었지만 사실상 남베트남에서 주요 군사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를테면 한국은 군사 고문 활동에 대해 미국에 비밀로 하였지만 이후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미국의 제재에 부딪히게 되었다. 미국은 한-남베트남의 단독적 군사 활동을 우려하여 새뮤얼 버거 (Samuel Berger)<sup>22</sup> 주한 대사는 한국 측에게 모든 한-남베트남 군사 활동은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국군사고문단의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였다 (송정남, 2006, 45). 특히 이 시기에는 국내-외 베트남 전쟁에 반전 여론으로 인하여 미국도 Staley-Taylor 전쟁 계획<sup>23</sup>대로 전투부대를 보냈던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1963 년에 미국의 제 35 대 대통령 케네디 (John Fitzgerald Kennedy)<sup>24</sup> 의 암살 사건이 베트남 전쟁에 간접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즉 후임 존슨(Lyndon B. Johnson)<sup>25</sup> 대통령은 전 Staley-Taylor<sup>26</sup> 계획을 부정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에 미군 전투부대를 직접 보내기로 하였다. 따라서 1964 년 5 월 미국은 우방국들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을 받았던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적극 호응한 한국은 이후 4 차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로 전투부대를 보냈다.

---

<sup>22</sup> Samuel D. Berger 는 미국의 외교관이고 1961~1964 년에 제 7 대 주한 대사로 재직했다.

<sup>23</sup> Staley-Taylor: 1961~1965 년에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진행한 전쟁 계획. 이 계획에 따라서 남베트남을 18 개월동안 평정하여 베트남공화국 군대의 전쟁에 압도적 위세를 확보하는 목적이다.

<sup>24</sup> 케네디 (John Fitzgerald Kennedy)는 1961~1963 년에 미국의 제 35 대 대통령이다.

<sup>25</sup> 존슨(Lyndon B. Johnson)는 1963~1969 년에 미국의 제 36 대 대통령이다.

<sup>26</sup> 또는 The special warfare 라고 한다. 베트남공화군+미국의 군사고문+미국지원의 구성으로 전투함.

같은 해 7 월에 남베트남 총리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이전부터 제안해 온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데면 한국은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부까지는 끊임없이 베트남에 군사를 파병하겠다는 시도가 있었지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으로 미루어지게 되어 1964 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위에서 언급된 1962 년에 한-남베트남의 단독적 군사 행위를 통해 당시 한-남베트남 관계는 미국의 주재하에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을 게이트로 하는 외교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등장하여 한국의 주도적 외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는 바로 한-남베트남 사회-경제 측면의 우호 관계였다. 한국군 파병 전에도 경제 측면을 보면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시장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양국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무역 활동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남베트남 시장에 쉽게 진출하였고, 한국도 남베트남의 물품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 양국 경제 관계에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한-남베트남 경제협력은 1960 년부터 시작된 관계였다. 1965 년 5 월 20 일에 상업 대표자 14 명을 포함하는 한국 경제협력 사절단이 남베트남에 방문하여 상업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남베트남 대표자가 환영사 내용을 통해 이전 5 년 동안 양국의 경제 관계를 정리하였다.

“Từ 5 năm nay, hai quốc gia Hàn Việt đã cùng nhau kết chặt sợi dây liên lạc kinh tế. Một thỏa ước thương mại đã được ký kết vào ngày 19 tháng 12 năm 1962, trong đó hai quốc gia cùng đàm phán với những điều khoản tối huệ quốc.”

(최근 5 년 동안 한-남베트남 양국은 경제협력을 함께 도모해 왔다. 1962 년 12 월 19 일에 한 무역협정이 조인되었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양국은 상호 최혜국 대우를 받았습니다.)

[TUAN SAN PHONG THUONG MAI SAI GON 주간지, 1965 년 5 월 28 일, 제 407 호, p. 6].

앞서 1958 년 12 월 17 일에 양국 간에 통상관계조약으로 맺어지는 관세협정도 있었다<sup>27</sup>. 그러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1962 년 무역협정을 조인한 후 양국의 경제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하였다. 회의 자리에서 남베트남 측은 경제 협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으며 당시 남베트남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고무와 Kenaf 섬유, 옥수수, 커피, 차... 등만 수출 가능하다는 정보도 같이 공유하였다. 이때 남베트남은 원자재만 수출했던 반면에 한국은 제 1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sup>28</sup>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러 완제품이나 기계를 수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양국의

---

<sup>27</sup> “한국의 양자간조약체결현황 (1970 년 12 월 31 일 현재)”. 외무부. 상공부. 1971. pp.377~378.

<sup>28</sup>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박정희 행정부가 진행된 1962~1996 년에 총 7 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이다.

수출 가치의 격차는 한-남베트남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아래 60 년대 초반 양국의 수출 활동의 실적을 통하여 볼 수 있다.

<표 1> 1961~1966 년 한-남베트남 수-출입

(단위: 달러)

년도	한국의 수출 (베트남공화국 시장에)	베트남공화국의 수출 (한국 시장에)
1961	152,892	0
1962	700,486	0
1963	13,449,999	1,204,054
1964	7,037,977	0
1965	18,244,082	58
1966 (1~9 월)	8,778,582	97,725

출처: Lam Son. (1967). *Hội nghị Hàn - Việt. Chấn hưng kinh tế* (경제진흥). Vol.526, pp. 3~5.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공화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뚜렷한 수입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1961 년에 한국은 이미 수출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공화국은 1963 년에서야 한국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1963 년에 베트남공화국의 한국 시장에 수출 실적이 가장 높았을 때도 그해 한국 수출 실적의 약 8.9%에 불과하였다. 1967 년 남베트남에 들어오는 한국 수입품의 가격이 총 9 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당시 한국은 주로 철강, 담배, 재봉틀, 섬유기계, 버스와 자동차의 부품 등의 산업 제품을 수출했던 반면 남베트남은 주요 농업 제품이나 산업 원자재만 수출하였다 (Tin tức Đại Hàn, 1968, 11).

### <사진 1> 한국의 첫 20 대의 버스 사이공 항구에서 하륙하는 모습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 Vol.3, pp.12

남베트남 각종 신문에서도 이러한 한-남베트남 무역의 불균형을 우려하였고 한국 시장을 연구함으로써 남베트남도 한국의 경제개발 방식을 쫓아가고자 하였다 (Chấn hưng kinh tế, 1970, 3-6, 33). 그러나 이러한 한-남베트남 불균형 무역 관계는 별다른 변화없이 베트남공화국이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양국의 경제 관계에서 베트남공화국 측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당시 미국의 지원에 의해 남베트남 시장은 손해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한-남베트남 경제 관계는 쌍방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당시 한국은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벌였던 많은 돈을 베트남 전쟁에다 쏟아부었고 패전하였다. 미국의 패전으로 1975 년에 베트남공화국은 패망하였다. 당시 한-미-남베트남 중 한국만이 경제 개발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만약 미국의 한국 베트남전에 파병제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베트남공화국에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조건과 당시 한국의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한국은 남베트남과의 상당한 교류 실적도 보여 주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남베트남 관계는 단순히 미국의 주도 아래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1965~1972 년 한-남베트남 밀월관계

#### 3.1 한-남베트남 관계의 군사-정치적 측면

베트남 참전 시기 한-남베트남 관계는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전 후방지원으로 비둘기 부대를 보냈으며 1965 년이 베트남 전쟁에 약 2 만 명 전투부대(맹호, 청룡)를 보냈다. 따라서 파병 시기에 한-남베트남 양국에서는 군사지원에 관한 수많은 고위급 방문이나 회담, 면담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만남은 1966 년 10 월 21 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공화국을 비공식 방문이다. 마닐라 정상회담<sup>29</sup>을 앞두고 티우 대통령과 군사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회담한 박정희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1969 년 5 월 27 일에 티우 대통령은 3 박 4 일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1966 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베트남방문과 1969 년에 티우 대통령의 한국방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방문 모두 미국이 개최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만남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만남의 차이점도 극명하다. 1966 년에 정상회담은 한국이 참여하는 베트남 전쟁 참전국들의 정상회담이었다면 1969 년에는 한국의 참여 없이 베트남공화국과 미국만 참석하는 미국-남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1969 년

---

<sup>29</sup> 마닐라 정상회담: 1966 년 10 월 24~25 일에 마닐라에서 개최된 베트남 참전 7 개국의 정상회담. 한국, 미국, 필리핀, 태국, 호주, 베트남공화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6 월 8 일 Midway 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닉슨 (Richard Nixon)<sup>30</sup>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sup>31</sup> 정책에 따라 같은 해 8 월 말까지 25,000 명의 규모로 베트남에서 철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베트남 병력 강화 및 군사지원 계획 또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는 1969 년에 한국이 Midway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담에 앞서 이루어진 한-남베트남 양국의 만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주목된다. 1969 년 만남은 미국의 베트남 철수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969 년 5 월 30 일에 박정희 대통령과 티우 대통령이 조인했던 공동성명서 10 조에서 14 조까지의 내용을 분석하면 미국의 철군 정책에 대한 양국의 견해를 볼 수 있다.

“10. 양국 대통령은 월남 분쟁에 관련된 현 사태, 특히 「과리」 평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월남에서 정당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연합국의 군사적 노력과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연합군의 철수 문제는 참전국 및 월남 공화국 간에서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하며** 또한 협조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공산 측에 의한 상응하는 조치 없이 연합군의 일부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연합군의 안전을 해롭게 하는

---

<sup>30</sup> Richard Milhous Nixon (1913~1994)는 미국 제 37 대 대통령이다.

<sup>31</sup> Vietnamization of the war: 1969 년 1 월에 미국 제 37 대 대통령 취임 후 닉슨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임을 남베트남에게 넘기겠다고 주장한 미군 철수 계획이다.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sup>32</sup>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6 집 5 월  
편 / 대통령비서실. 1969]

양국은 미국의 철군 계획에 앞서 서로 긴밀한 군사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특히 한국은 베트남공화국을 적극적 지지하는 의사표시 하였다. 티우 대통령은 미군이 떠나더라도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한국군을 증파해 줄 것을 원하였다. 이전에 남베트남 외상과 한국 외무장관의 면담 자리에서 미군 철군 후 한국군의 증강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논의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베트남은 미국이 떠나더라도 한국군 증파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베트남 외상 면담 자리에서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문제 때문에 한국군의 증파가 어렵다는 대답을 하였다<sup>33</sup>. 무엇보다 이 시점까지 한국은 남베트남에 남을지 또는 미국에 따라서 철군할 것인지 망설이는 중이었지만 증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남베트남의 증파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후방 지원, 사회협력 강화, 경제, 기술 및 사회복지 개발 등의 약속을 하였다. 이는 1969 년 5 월 30 일 정상회담 내용 13 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 협력을 증진하기로 서명하였다.

---

<sup>32</sup>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6 집 5 월편/ 대통령비서실. 1969. 대통령기록관.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

<sup>33</sup> “월남 외상과의 면담 (외무장관 보고)”. 1969.대통령기록관.



“14. 양국 대통령은 경제, 기술 및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을 일층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 간에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과, 이를 위한 교섭을 정상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할 것에 합의하였다.”<sup>34</sup>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6 집 5 월 편 / 대통령비서실. 1969].

이후 베트남 전쟁 철군 과정에서도 한국은 철군 결정에 대해 주저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1970 년이 되자 미국은 약 3~5 만 명의 제 4 차 대규모 철군 계획을 발표하였고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국에서도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수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불철수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sup>35</sup> 하는 한국은 베트남공화국 측의 진지한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철군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965~1972 년 동안의 한-남베트남 군사-장치 관계는 밀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1970 년 4 월에 한-남베트남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을 가조인했으나 5 월이 되자 한국은 처음으로 주남베트남 한국군 철수에 대한 문제를

---

<sup>34</sup>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6 집 5 월편/ 대통령비서실. 1969. 대통령기록관.

[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http://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04_result.jsp).

<sup>35</sup> “월남 대사 보고서”. 1970. 대통령기록관.

제기하였다<sup>36</sup>. 이어서 1972 년 9 월 초에 한국은 1973 년 1 월부터 베트남에서 철군하겠다고 남베트남과 미국에게 통보하였다<sup>37</sup>. 그러자 한국군의 철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티우 대통령의 친서가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sup>38</sup>. 한국은 앞서 철수 계획을 재고하기 어렵다는 답을 하였지만 2 개월을 더 주둔한 후 1973 년 3 월에 철수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 시점으로부터 한-남베트남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주는 끈이 풀려 이들 관계의 특성도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 3.2 한-남베트남 관계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 3.2.1 경제 측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이나 “지역 집단 안전보장체제 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남베트남 시장은 중요한 요소였다. 베트남 시장은 한국에게 놓칠 수 없는 수출시장이었기 때문에 한-남베트남 경제 관계에서 한국 측은 언제나 앞서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9 년 6 월 “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서”<sup>39</sup>를 분석하면 한국은 남베트남 시장을 이로운 수출 시장으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한국 측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는 한-남베트남 경제 협력이라고 적어 놓았다. 당시 한국은

---

<sup>36</sup> “주월 한국군의 철수문제에 관한 월남고위층의 반응 (주월사령관보고)”. 1970. 대통령비서실.

<sup>37</sup> “주월 한국군 잔여병력 철수 (외무부 보고)”. 1972. 대통령비서실.

<sup>38</sup> “주월군 철수문제에 관한 티우 대통령 친서 (외무부 보고)”. 1972. 대통령비서실.

<sup>39</sup> “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1969. 대통령기록관.

상대국 수출업자의 등록을 허용할 것을 제의했으나 베트남공화국 측은 기술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하기에 추후 답하겠다고 했고 대신 비료나 시멘트 수출을 제안하였다<sup>40</sup>.

1960년대 초반에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서 창립된지 2년밖에 안되었던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sup>41</sup>의 역할이다. KOTRA는 1964년부터 사이공에 진출하여 “Korea Trade Center Kotra” 사이공 사무실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이 남베트남에서 수출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무역진흥공사 수출센터 국내전시관에 상시 게시할 메시지”에 한국 정부의 “수출진흥” 또는 “수출제일주의”의 임무를 단호하게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는 **제일 과제가 바로 수출진흥을 통한 외화의 획득**은 다시 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아껴 쓰고, 더 만들어서, 많이 벌어들이는 일」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요한 목표를 **수출제일주의**로 삼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시책을 통하여 생산-무역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사업을

---

<sup>40</sup> “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 대통령비서실. 1969. 대통령기록관.

<sup>41</sup> “대한무역진흥공사”는 1962년 6월 21일에 설립되고 1995년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명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무역촉진 및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산업 기술 협력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KOTRA는 영문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약칭이다.

최선을 다해 보호 육성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데 모든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sup>42</sup>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1 집 경제/ 대통령공보비서관실. 1964].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당시 한국이 대베트남 경제 정책에 대해 대내외적 일관성을 갖고서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거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 수출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출도 포함된 “수출제일주의”를 목표로 삼고 진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베트남은 한국의 10대 수출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sup>43</sup>.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남베트남 시장에서 급성장된 한국 재벌들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베트남 시장에 전쟁활용형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건축, 운송, 방직 등 분야에 참여했던 현대, 한진, 대우 기업들은 남베트남 수출시장을 기반으로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의 재벌이 되었다. 따라서 이때 남베트남에 한국 노동력 수출은 70% 이상이었고 이러한 한국 업체들을 통하여 파견했던 것이다. 남은 30%의 한국 노동자나 기술자는 남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을 통하여 파견되었다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166). 이러한 남베트남 시장에 노동력

---

<sup>42</sup>무역진흥공사 수출센터 국내전시관에 상시 게시할 메시지.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1 집 경제/ 대통령공보비서관실. 1964.

<sup>43</sup>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수출은 한국에 상당한 외화 수입을 올려 주는 계기였다. 또한, 남베트남에서 1965~1972 년 8 년간 한국의 경제활동 수출 수익은 9.23 천만 달러로 벌었던 총 수익의 9.2% (용역군납 제일 큰 비중으로 22.8%) 차지하였다<sup>44</sup>. 이는 무엇보다 1965 년에 처음으로 전투부대 파병을 계기로 한-남베트남 양국 간의 경제 활동이 한층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베트남공화국의 한국시장 진출은 실패한 반면 한국은 1965 년부터 1970 년까지 베트남에서 경제활동 수입을 지속해서 올리게 되었다. 특히 용역군납, 건설군납, 군인송금, 군대기술자송금, 특별보상지원 등의 무역외수입을 제외하여 일반 수출과 무역군납의 경상수입은 다음 <도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일반 무역 수출은 1965 년에 가장 높았고 1967~1968 년간 최저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1967 년에 미국이 남베트남 시장 수입에 개입하여 Buy American<sup>45</sup> 이란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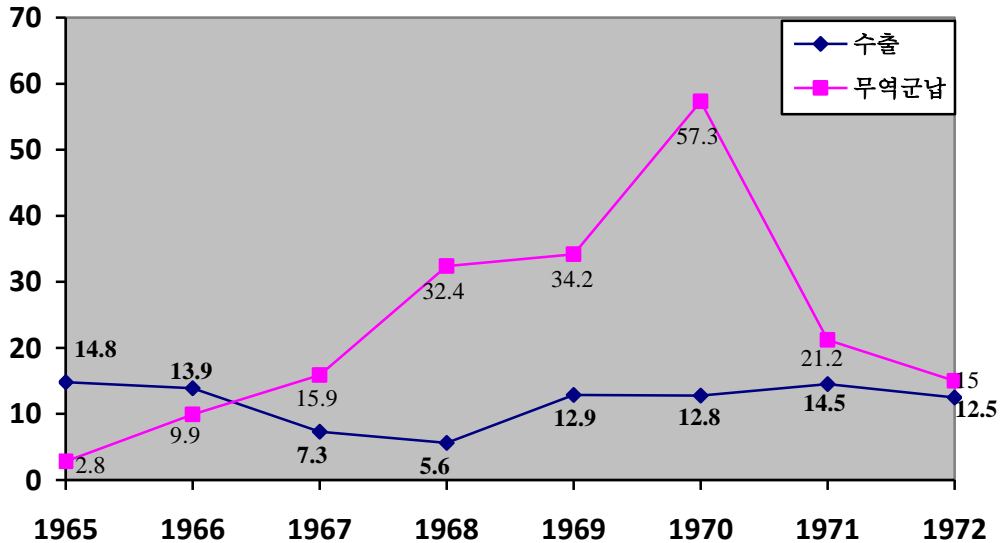
---

<sup>44</sup> 윤충로. 2005.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기술자의 저항 -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97 쪽.

<sup>45</sup> Buy American 는 미국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도표 1> 1965~1972 년 한국의 베트남 경제활동 수입

(100 만 달러)



출처: 윤충로(2005, pp. 97)에서 정리.

그러나 경제 이익을 목표로 했던 한국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기 이전 이미 남베트남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무역 수출이 떨어졌을 때 무역군납 수입은 1967~1968 년 동안 2 배나 급증하였다. 이는 한국이 남베트남에 일반 무역 수출보다는 이미 무역군납에 대한 관심을 두고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 파병한 시점부터 경제 측면에서도 더욱 압도적인 우세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1971~1972 년에는 철수를 앞둔 시기 무역군납에 대한 수입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역 활동 수출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바로 1969~1972 년에 한국이 남베트남에 점유한 수출 시장이 안정화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베트남에의 한국 수출 시장이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은 한국이 대남베트남 경제 정책을 효과적 수행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남베트남 경제 관계에서 한국은 최대한 경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전면적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테면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남베트남 시장이 바로 한국이 미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 3.2.2 사회-문화 교류 측면

1965~1972 년은 한국군 파병 시기여서 사회 문화 교류 활동들도 대부분 한국군의 “민사심리전”이란 정책대로 이루어졌다. 이는 베트남 전쟁이 게릴라전이어서 베트남 양민 속에서 베트콩을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군에게도 베트남어 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의 1967 년 “한-월간 이해 증진 사업 계획”<sup>46</sup>에 따르면 한국군, 한국 기술자 또는 남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 분기 1 회씩 훈련을 시키도록 계획을 마련하였다. 훈련 내용은 주요 양국의 역사적 관계, 베트남에 한국군 파병의 의미,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특히 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베트남 전쟁의 의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2>에서 표시된 내용으로는 한국 측은 상당한 지원

---

<sup>46</sup> 기획국. 1967.

금액으로 수많은 사업을 계획하며 한-남베트남의 사회 측면에 우호 관계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표 2> 예산 총괄표

순위	사업명	세부내역	수요예산
1	주월 국군 및 한국인 기술자에 대한 순회지도	편성: 연사 4 명, 안내 1 명 목표량: 연 4 회 (분기 1 회)	V 380,000 원
2	주월 한국군 및 파월보충병에 대한 목별정훈 교육	방별: 부대별 집체교육 고관: 지휘관 및 정훈관	비예산
3	주월 한국인 및 월남인에 대한 피.알 (1) 화보 발간	규격: 다이브로이드판 52 편 수량: 1 회 5 만부 발간 목표량: 연 4 회 (20 만부)	30,112,000
4	(2) 팜프렐 발간	규격: 국판 52 면 수량: 6 종, 각 5 만 부 목표량: 각종별 단행본 연 1 회	13,482,000
5	한국언론인의 월남 방문	편성: 4 개급별도 편성 (15~20 명) 회수: 연 4 회 (각급별도 연 1 회)	5,460,000
6	월남언론인의 한국 방문 초정	편성: 4 개급별도 편성 (15 명) 회수: 연 4 회 (각급별도 연 1 회)	22,000,000
7	월남어 연속강좌 (방송)	시간: 1 일 10 분 방송 목표량: 연 300 일	150,000
8	한월 친선 정규프로 (방송)	시간: 주간 20 분 방송 목표량: 연간 52 회	145,600
	합계		71,729,600 원

출처: “한-월간 이해 증진 사업 계획” (1967). 기획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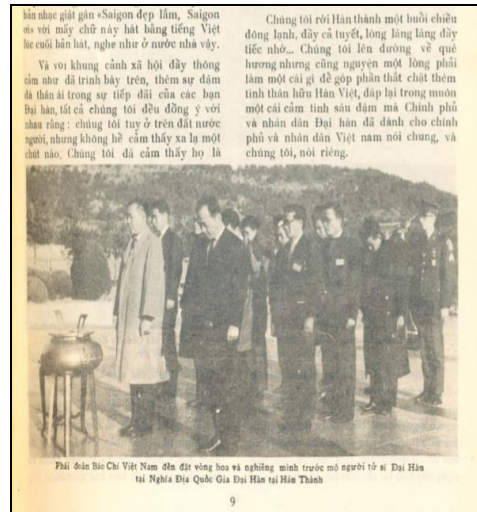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 사업만으로는 거대한 비용만 들었을 뿐 당시 전쟁과 혼란 시기를 겪고 있는 남베트남 민심을 잡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리하여 한국은 남베트남 언론을 활용함으로써 지원 사업과 한국 이미지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여 남베트남 민심을 사로잡으려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 언론인의 방문 횟수가 연 8 회까지 계획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은 한국 언론인을 사이공으로 보내는 비용보다 남베트남 언론인을 서울로 초청하는 비용이 4 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었고 이 정책에 집중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국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소프트 파워처럼 한국 군사 활동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베트남에 한국의 활동에 관한 전문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sup>47</sup> 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베트남공화국 시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역할을 하였다. 대한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남베트남 신문도 한-남베트남 밀월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이는 한-남베트남의 상호 협력이 없었으면 한국 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렇게 남베트남의 언론계를 한국에 우호적으로 길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sup>47</sup>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1972 년 간에 남베트남에서 출간된 특집판 신문이다. 현재 이 신문은 호치민 중앙 도서관에서 보관되고 있다.

## <사진 2> 1967년 12월 18일에 베트남 신문계 방한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1967, Vol.4, pp.6~9.

한국의 정보통신부 초청으로 196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남베트남 신문계 사절단은 일주일 동안 방한하였다. 이 방문을 계기로 남베트남 신문계 사절단은 정일권 한국 국무총리와 회담 자리를 가졌고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위의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방문에 관한 기사 내용은 사절단의 대표자가 직접 정리하여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에 실었다. 이 내용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다소 과장되게 꾸며진 것이었다. 남베트남 언론보도를 통하여 좋은 한국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노력은 한국군이 전쟁에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남베트남

언론을 이용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해외 진출에 사용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상의 “민사심리전”의 정책대로 추진해 나갔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에 우호 교류 활동들도 능동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단 “민사심리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비둘기 부대는 남베트남에서 수많은 학교, 도로, 가옥, 공동시설 등을 건축하였다. 건설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가옥과 공동시설이었다. 한국 파병 이후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 3>와 같은 건설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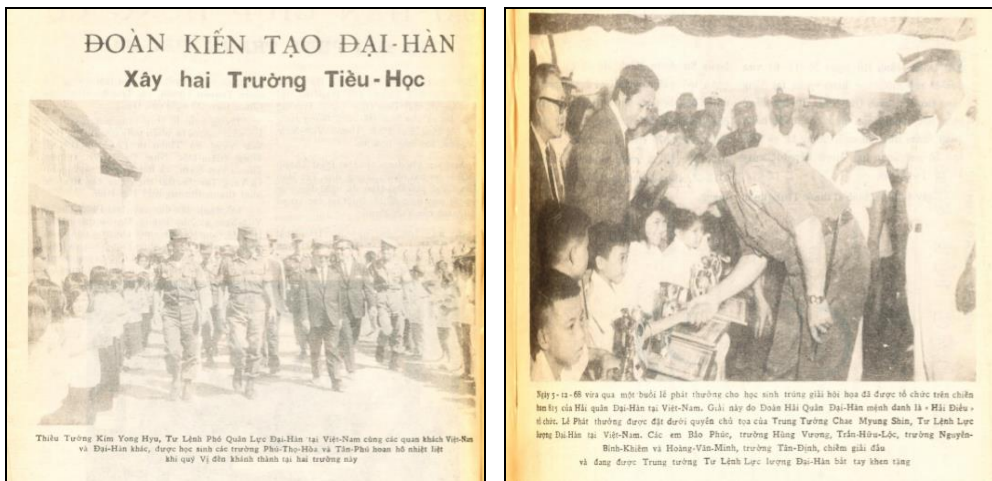
<표 3> 1965~1969년 년도별 대민 건설 지원 현황

년도 구분	단위	합계	1965	1966	1967	1968	1969
가옥	동	1,479		241	191	933	114
교실	개	278	2	45	51	141	39
교량	개	136	4	16	60	46	10
도로		449.3	31	84.8	137.5	144.9	51.1
공동시설	건	674	4	83	239	224	124
기타시설	건	416		36	122	112	146

출처: 한국의 대월 원조, 1969. 외무부.

당시 한국 외무부 보고서를 보면 위와 같은 건설 지원 사업들을 자세한 기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 사업의 진행과 동시에 한국은 남베트남 민심을 잡으려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언론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이시기의 대표적 지원 활동들은 당시 남베트남 신문 기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진 3>에서 비둘기부대와 주 남베트남 부사령관이 신축 초등학교 2 개 건물의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민사심리전”을 통하여 양국의 사회 측면에 협력 노력을 보여 주었다.

<사진 3> 신축 초등학교 2 대 개관식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Vol.14, pp.14~15

한국 정부가 이 시기에 전쟁을 겪고 있는 남베트남에 사회적 지원을 했던 것은 다음 사진들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사진 4>는

1968 년 11 월 20 일에 주 남베트남 통신장 한숙양과 남베트남 통신정보  
총사장 레반유엔 (Lê Văn Duyên)이 기증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1968 년  
습격으로 인하여 남베트남 방송국이 파손을 당해 한국 측은 앰프튜너 2 개를  
기증하였다. 그리고 <사진 5>는 1969 년 1 월 8 일에 한국이 기증한 농업  
장비들이며 이는 총 16,300 달러 상당인 농업 장비들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남베트남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국 농업  
전문가는 총 35 명이라는 정보와 함께 공유하였다 (대한뉴스, 1969. Vo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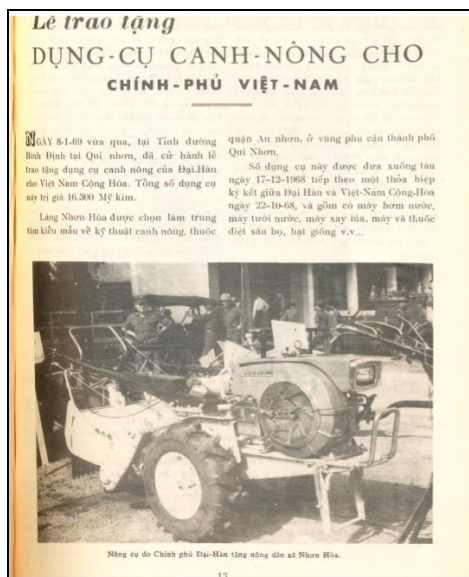
#### <사진 4>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 기계 기증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Vol.14, pp.13.

#### <사진 5> 한국 농업장비 기증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9,  
Vol.15, pp.13.

한국은 군사 인력으로 남베트남에서 수많은 공공시설을 건축하였다. <사진 6>은 1971 년 10 월 29 일에 한-남베트남 의료센터의 착공식에 참석하는 주 남베트남대사와 남베트남 총리의 모습이였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9 년 5 월에 응웬반티우 대통령의 공식 방한에 대해 감사 의미의 표시로 2.445 백만 달러 예산을 들인 건축물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약속은 1969 년 “대한민국 박 대통령 각하와 월남공화국 티우 대통령 각하간의 공동성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13. 박 대통령 각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공화국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월남 내에 종합 병원을 건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티우」대통령 각하는 이를 환영하고 월남 공화국 정부 및 월남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의 우의에 감사하였다.”<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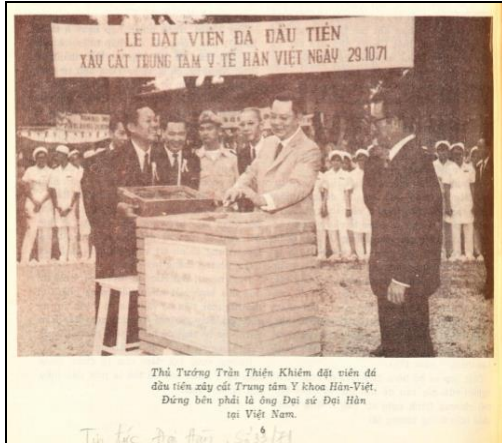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 6 집 5 월 편 / 대통령비서실. 1969].

---

<sup>48</sup> “대한민국 박 대통령 각하와 월남공화국 티우 대통령 각하간의 공동성명서”. 1969. 대통령비서실.

<사진 6> 한-남베트남

의료센터의 착공식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71,  
Vol.33, pp.6.

<사진 7> Hoa Binh 공원 개관식



출처: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72,  
Vol.36, pp.15.

<사진 7>은 1972 년 7 월 27 일에 주 남베트남대사, 주 남베트남 사령관과 사이공시장이 “Hòa Bình” (화 뽀)이라는 공원의 개관식에 참석한 장면이다. 이 공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이공 시민에게 특별히 선물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2 천만 동에 이르는 이 공원을 기증했으며 “화평”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다. 그리고 큰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메콩델타 “Gò Công” (거 쑹)이란 지방의 지구 수리 관개 기술조사를 위해 30 만 달러 지원도 제의하였다<sup>49</sup>.

<sup>49</sup> “한월 개별 각료회담 결과 보고”. 1969. 대통령비서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남베트남 농촌에서 도시까지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반면에 남베트남은 한국 국내 신문에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하였을 때만 잠깐 보도될 뿐 한국언론을 통해 남베트남 이미지를 홍보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은 하드파워로 대변되는 군사적 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 파병 외에 각 사회 분야별 정책들을 수립하고 남베트남에 진출했던 점을 통해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즉 한국과 남베트남과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의 남베트남 사회 지원 정책을 통해 강화되었다.

3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65~1972 년 동안 한-남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친 한국 측의 정책들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서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한-남베트남의 밀월 관계를 베트남 전쟁 또는 미국의 주재하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점이 바로 당시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들이다. 이는 바로 한-남베트남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베트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4. 1973~1975 년 한-남베트남 외교관계의 말엽

### 4.1 한국 철군 이후 한-남베트남 관계

전술대로 1970 년 초에 미국이 대규모로 제 4 차 철군 계획을 선포했을 때 다른 참전국들도 철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철수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불철수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sup>50</sup>. 그러나 같은 해 5 월 한국은 처음으로 주 남베트남 한국군 철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1972 년 말까지 주둔하겠다고 통보하였다<sup>51</sup>. 이러한 한국의 철수계획도 남베트남 측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수정되어 왔다. 당시 남베트남의 입장으로서는 한국군이 오래도록 주둔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평화협정<sup>52</sup> 이 조인된 후 1973 년 3 월까지 한국군은 베트남에 주둔하다 뒤늦게 철수했다. 이는 한국이 남베트남의 요청에 의해 철군을 주저했던 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 측의 이러한 태도는 남베트남 우방국의 입장으로써 주저하기 보다는 남베트남에서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양수 주 남베트남대사는 한국군 철수의 연기를 건의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익이라고

---

<sup>50</sup> “월남 대사 보고서”. 1970. 대통령비서실.

<sup>51</sup> “주월 한국군의 철수문제에 관한 월남고위층의 반응 (주월사령관보고)”. 1970. 대통령비서실.

<sup>52</sup> 파리평화협정 (Paris Peace Accords): 베트남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973 년 1 월 27 일에 파리에서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사이에 조인된 협정이다.

하면서 1972 년 이후 한국이 남베트남에서 획득한 외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sup>53</sup>. 그리고 유양수 대사는 당시 미국 공군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군 안전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철수에 대한 결정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한-남베트남 관계를 맺는 핵심 요인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아니라 한국이 파병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파병 이후에도 경제 이익 때문에 한-남베트남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남베트남 관계는 한국군 철군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만약에 한-남베트남 관계는 미국 또는 베트남 전쟁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면 미군이나 한국군 철수 시점으로부터 끝나야 했는데 1972 년에 양국 간의 “군사 지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측면에서의 관계는 아직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sup>53</sup> “주월한국군 철수문제에 관한 건의 (주월대사)”. 대통령비서실. 1972.

<표 4> 1972~1975 년 한국의 남베트남 수입 현황

(단위 : 천불, %)

년도	수입 금액	증감률
1972	2,212	37.2
1973	7,620	244.5
1974	5,208	-31.7
1975	551	-89.4
1976	0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표 4>에서 한국군이 모두 철수했던 1973 년에 한국의 남베트남으로부터 수입 금액은 철수와 상관없이 1972 년에 비해 244.5%나 뚜렷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3~1975 년간에 베트남으로부터 수입 금액이 연속 차감되었지만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남베트남이 패망했던 1975 년까지 수입 활동은 유지되었으며 1976 년에는 완전히 끝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입 활동을 통하여 당시 양국의 경제 관계는 남베트남이 패망될 때까지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철군 이후 한국이 남베트남에 경제-사회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도 간과하면 안 된다. 종전 후 티우 대통령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서독 등을

방문했고 1974 년 4 월 12 일에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남베트남 재건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던 티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시멘트 (1 만 톤), 모포 (2.5 만 장), 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총 100 만 달러에 상당한 긴급구호원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sup>54</sup>. 남베트남 측은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방들과의 우호 관계를 격상시키려 애를 썼다. 남베트남을 포기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누구보다 티우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고 북베트남의 남침 계획도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1974 년 5 월 티우 대통령은 북베트남의 파괴협정 위반과 공격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하는 친서<sup>55</sup>를 보냈지만, 당시 한국은 독재 체제가 심각한 정치-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으며 베트남에 더이상 개입할 명분과 이익도 없었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남베트남 정부에게 우방 힘에 의존하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한-남베트남 외교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남베트남 경제 관계는 한국의 철군에 따라 무너지지 않고 남베트남이 패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만약 1975 년 4 월 30 일에 남베트남이 패망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는 1974 년 구호계획처럼 계속 후방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

<sup>54</sup> “대월 긴급원조계획 추진현황(중간보고)”. 1973. 대통령비서실.

<sup>55</sup> “티우 대통령의 친서 (외무부 보고)”. 1974. 대통령비서실.

미국의 영향이 없어졌어도 한국과 남베트남의 사이는 상호 유지되는 관계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한-남베트남 관계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펼칠 수 있는 전망이었다.

## 4.2 그 이후 한국의 동남아시아 외교 정책

베트남 전쟁이 종전된 후 한국의 동남아시아와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그 전 70년대 초반에 한국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을 구상하였다. 특히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과 동일하게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게릴라 전쟁에서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철수했을 때에도 한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팽창을 통하여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전쟁 종전 후 한국군을 필리핀과 태국에 보낼 계획도 강구하였다 (박태균, 25, 2015). 그 전에도 한국은 1971년 2월 캄보디아에 프놈펜 공항 피습 사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때 한국 외무부 보고서를 보면 “캄보디아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는 월남군의 직접적인 군사지원과 미국의 군사원조가 신속,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sup>56</sup>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앞서 언급된 남베트남의 신속적, 효율적 군사지원이 불가피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으로서는 한국군이

---

<sup>56</sup> “프놈펜 공항 피습후의 캄보디아 사태”. 외무부보고, 제 71~55 호, 1971.2.1.

캄보디아뿐만 아닌 태국, 필리핀 등에도 미국과 같이 군사동맹국이 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동남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도 역할은 1975 년 술레징거 장관과 함병춘 대사의 면담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사진 8> 1975 년 4 월 3 일 함병춘 대사의 면담 내용

(4) 단, 현년도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경제적 지원만은 계속할 수 있을 것임.

나. 인지사태가 타 지역에 미칠 영향 :

(함대사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임을 지적하고, 미국으로서는 현 시기에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강력히 재확인할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대하여)

(1) 월남이 무너지면 경우, 태국의 경우는 다소 제외적으로 생각하나, 비올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입장임.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는 자체의 힘으로도 방어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미국의 여론은 인지에 대하여는 나쁘나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음. 또한 금번 사태는 미국외죄와 국민에게 새로운 경종이 되고 있는바, 기타 지역 특히 동맹국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

(3) 단지, 인지반도 이남의 동남아 국가에 대하여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는 바임.

2131 22861 1601

대통령비서실 7 22915 34

출처: 대통령비서실. "함병춘 대사의 술레징거장관 면담 내용".1975.

<사진 8>에서 본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함병춘 대사는 남베트남이 무너질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 미국 측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가들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측은 “인도차이나반도 이남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당시 한국은 동남아시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러한 대책에 기여하고 싶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 베트남 파병 때처럼 미국의 군사동맹으로 등장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또다시 있다면 한국은 다시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는 결국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에 따라 좌절되었다.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했고 철수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서로 손을 잡았던 것이다. 1972 년 2 월에 발표된 상해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 동남아시아 지역(특히 남베트남)에서 군사적 활동을 줄이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한국의 반공 명분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기반으로 만든 동남아시아 지역 집단안보체제가 결국 결과없이 좌절된 것이다. 당시 한국이 미국에 게이트를 통하여 대만, 남베트남과의 우호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미국이

중국 앞에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부정하고 남베트남을 포기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에 동남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한국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지워 버리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말레이시아 (1974 년), 필리핀 (1975 년), 태국 (1975 년)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1975 년에 남베트남은 패망하였다. 나아가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을 게이트를 하여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였다<sup>57</sup>.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 국면에서는 한국과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두 가지의 외교적 방향을 잡았다. 첫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닌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에 있는 비동맹국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던 한국의 이미지가 이러한 중립 국가들에게 결코 좋을 리 없었다. 그렇기에 중립 국가들에 접촉하려는 정책은 한국에게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75 년 2 월에 비동맹회원국과 접촉하기 위한 알제리아와의 관계 개선에서의 한국 정부 실패를 들 수 있다. 1975 년 2 월 15~18 일에 개최된 “유엔 공업 개발 기구”<sup>58</sup>(UNIDO)를 참석한 윤석헌 주불 대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고하였다.

---

<sup>57</sup> “아세안국가들의 대중공 수교 전망과 그 영향분석”. 1974. 대통령비서실.

<sup>58</sup> 유엔 공업 개발 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 발전과 산업기반의 정비지원하는 유엔의 전문 기관이다.



## “5. 결론

알제리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키 위한 외무성 당국과의 접촉은 불가능하였으나, 금번 회의를 통하여 아국의 대알제리아 관계 개선 희망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됨.

## 6. 건의 (대표단)

가. 비동맹 제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77 그룹<sup>59</sup>에 대한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 이를 위하여 Task Force 를 구성할 것.

나. 제 3 세력, 특히 그중 좌경국가에 대한 홍보, 선전 기능을 강화할 것.

다. 제 3 세력 지도국가 수 개국에 대하여 외교노력을 집중할 것.

라. 알제리아 체류중 아국 대표단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하여는 국내신문, 방송등에서 자극적인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할 것.”<sup>60</sup>

[외무부보고서. 대통령비서실. 1975].

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대알제리아 관계 개선 노력은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대표단도 제한조치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동맹국가들은 한국을 대신하여 북한을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알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배척당하였고 한국 정부는 어떠한 목표도 이룰 수 없었다.

---

<sup>59</sup> 77 그룹 (G-77)은 유엔에 속한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이다.

<sup>60</sup> “알제리아와의 관계개선 접촉시도”. 대통령비서실. 1975.

둘째는 반공주의의 극단적 태도를 버리고 공산 측과의 관계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는 한국이 1949 년부터 유엔 단독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과 연결되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은 1955 년, 1956 년, 1958 년, 그리고 1975 년에 지속적 유엔 단독가입을 추진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1974 년 8 월 9 일에 소련 외무성관리가 서방측 대사에게 발언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소련의 입장에는 한국과의 수교는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언급되면서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 신청은 어려운 것으로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서 소련, 중국과 미국에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중-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고 있으니 미국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소련은 한국이 소련과 접촉하거나 유엔 단독가입과 남-북 동시 가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계 개선에 효과가 없겠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 <사진 9> 소련의 대한민국 태도

<b>전문요약전</b>		수석비서관실		대통령	
수신: 외무장관		7		1974. 8. 9.	
발신: 주미대사					
<b>요약</b> <u>소련의 대한민국 태도.</u>					
미국무성 정보조사국 소련 문제 분석관의 제보에 의하면, 최근 소련 외무성의 중국, 한반도 및 일본지역 담당국장이 서방측 대사가에게 한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함.					
1. 소련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한 단계에서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또한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일본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2. 북한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동양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북한이 유엔 동서 개입을 반대하면서도 전문기구 개입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22520					
3. 소련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도발을 억제시키고 있는 바,      22521					
1097		94-96		대통령비서실 2-1 94 567 22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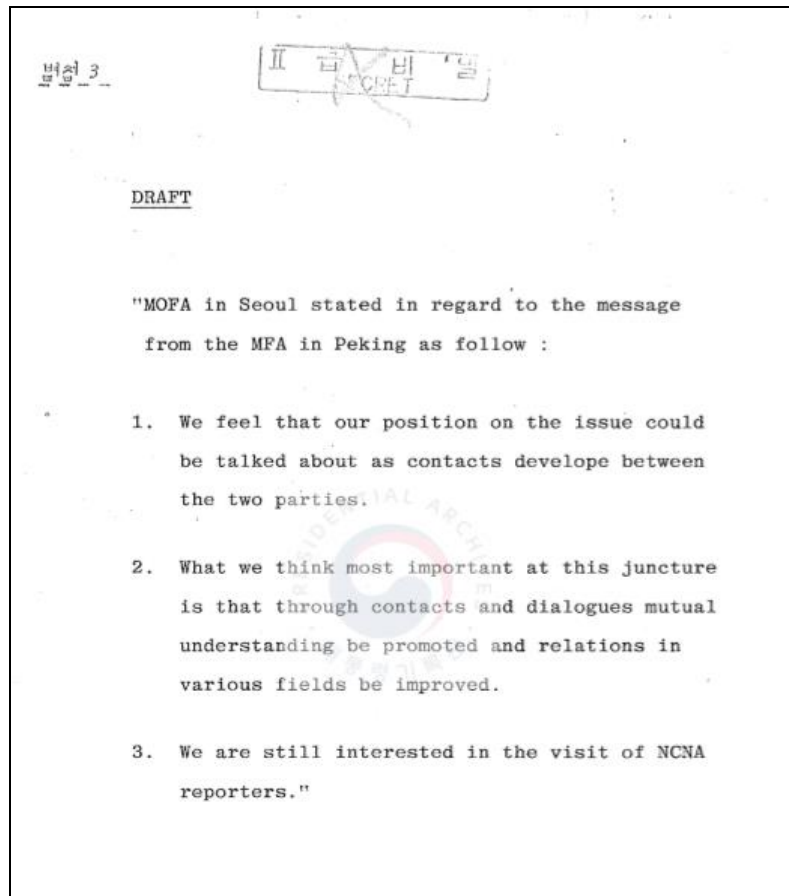
  

미국도 한국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 된다고 봄. (서방측 대사가 "중공이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질문하였으나,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하였다고 함)	
PRESIDENTIAL ARCHIVES 대통령기록관	
1097	568 22521
대통령비서실 2-2 22575	

출처: 대통령비서실, 외무부보고서, 1974.

그리고 위 문서를 보면 소련은 이 문제에 관련하여 남-북한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련, 중국 그리고 미국의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하나의 문제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의 협의 없이는 유엔가입에 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의 우려를 표하였다.

<사진 10> 중국외교부 멧세지에 대한 회신 내용



출처: 대통령비서실. 외무부보고서.1975.

다른 한편으로 1974 년에 중국은 신화사 기자 방한 협의 조건으로 한국이 대만과의 단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문의한 적이 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한국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1972 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미국에게 교환 조건으로 협의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에게 대만 문제를

양보했으나 중국 외교부의 구두 문의에 대한 한국 외무부의 회신 내용<sup>61</sup>을 통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대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위 <사진 10>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은 양국 간의 접촉 증진될 경우 논의하자고 즉각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대만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중국에게 특별히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sup>62</sup>. 당시 이 외교적 방안도 한국에게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미 동맹 외교를 유지하면서 비동맹 또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이 헛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한국은 비동맹 외교 노선에 진입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의 위기에 처하여 1975 년에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은 당시 한국에게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 수 없었으며 좌절로 치달은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무엇보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둘러싼 갈등은 80 년대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

<sup>61</sup> “중공외교부 멧세지에 대한 회신 내용”. 1975. 대통령 비서실.

<sup>62</sup> 박정희 대통령 시기 대공산권 정책 관련 문서 해재. 기광서. 대통령비서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들어서 공산주의가 도미노처럼 동유럽에서 소련까지 무너짐에 따라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정책을 펼치고 동유럽 (1989), 러시아 (1990), 중국 (1992), 베트남 (1992)와의 국교를 수립하였다. 유엔의 입장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의 우려되어 1991년 9월 17일에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결국,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42년의 한국 외교 노력이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 5. 결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남베트남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였다. 실제로 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부터 지역안보공동 대외인식 기반으로 인하여 남베트남과의 관계를 맺었고 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는 지역집단 안보체제 기반으로 한-남베트남은 밀월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미국은 50년대에는 한-남베트남 관계의 방해적 요소였지만 60년대에는 좋은 게이트가 되어 주었다. 본 논문은 한-남베트남 관계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동맹이 강화되고 미국의 개입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양국의 밀월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단순히 미국 주재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동맹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역사적 큰 사건으로 맺어진 한국과 남베트남의 군사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남베트남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맺은 한-베트남 관계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5년~1972년 시기 한-남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정책들은 매우 일관성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게이트로 외교정책을 풀어나가던 한국이 남베트남과의 관계에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실제로 그 의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어진 이러한 노력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르러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을 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베트남에 깊숙하게 개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다만,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으려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게 동맹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권의 부패와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남베트남 시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한국에게는 미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예음길이 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출제일주의”에 모든 국력을 동원한 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군사를 파병하지 않았다 하여도 한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남베트남과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전 파병 이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미 한국은 남베트남 시장을 한국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수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미관계에는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면 한-남베트남 관계에는 한국이 미국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타국 경제-사회 측면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는 한국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남베트남에게 지원 및 구조 사업을



보면 한국에게 남베트남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보다는 참다운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베트남 전쟁은 참혹했지만 그 후면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사회 지원과 문화 교류 등의 활동은 한-남베트남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7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변화하였고 남베트남의 패망에 따라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지역 집단안보체제를 더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교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은 비동맹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에 동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이 좌절되었다. 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자 열었던 한국의 외교 노선은 자연스레 풀리게 되었지만 비동맹 외교나 자주외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 정세가 급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에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냉전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너무나 유사하다. 또한, 오늘날까지 중-미관계, 한-미-일관계, 한-중관계, 한-베트남관계,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 구조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도 사드 문제로 인하여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문제를 볼 때 한국은 현실적으로 미국에 의지한 외교정책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또다시 미-중외교 충돌과 화해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외교정책의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한-남베트남 관계와 현재 한-중관계의

문제에서도 나타나듯이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국이 갖고 있는 외교적 한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자주적 외교는 실패한다고 할 수 있다.

한-남베트남의 관계는 1975 년 4 월 30 일에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인하여 단교 되었지만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미국을 게이트로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이 흔들리자 한국의 외교 또한 흔들리게 되었다. 한국은 강대국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한국의 외교적 한계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한계는 극복되지 못한 채 현 한국정부에게도 숙원의 문제로 남아 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외교적 과제는 앞서 한-남베트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박경석. (2014). 『불후의 명장 채명신』. 서울: 팔복원.
-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창비.
- 박태균. (2015). 『베트남 전쟁: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서울: 한겨레출판.
- 송정남. (2010). 『베트남 역사 읽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송정남. (2015). 『베트남 탐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윤대영, 응우옌 반 킴, 응우옌 마인 중. (2013).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 – 교류, 소통, 협력의 중층적 면모』. 서울: 이매진.
- 이한우, 부이 테 쯔영. (2015). 『1992-2012 한국-베트남 관계 20 년』. 서울:  
폴리테이아.
- 조흥국. (2009).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서울: 소나무.
- 최상수. (1966).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서울: 한월협회.
- 채명신. (2006). 『베트남 전쟁과 나: 채명신 회고록』, 서울: 팔복원.
- Henry Kissinger. (1982).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Henry Kissinger. (1999). *Years of renewal*. New York, NY: Simon Schuster.
- Nguyễn Hoàng Giáp. (2009). *Hàn Quốc với khu vực Đông Á sau Chiến tranh lạnh*.  
Hà Nội: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 논문

- 노영순. (2010).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해황도시문화교섭학, (2), pp. 241-246.
- 박태균. (2003). 『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과 ECAFE』. 국제지역연구, Vol.12(2), pp. 25-46.
- 박태균. (2006). 『박정희의 동아시아인식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사회 구상』. 역사비평, 8월, pp. 119-147.
- 박태균. (2015).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세계정치, Vol.14, pp. 11-39.
- 박태균. (2015). 『남베트남 패망 4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 역사비평, pp. 163-199.
- 윤충로. (2005). 『베트남 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과월기술자의 저항 –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9), pp. 93-128.
- 윤충로. (2006). 『과월 기술자의 베트남 전쟁 경험과 생활세계의 변화』. 사회와역사, (71), pp. 217-250.
- 이신재. (2014). 『주월한국군방송국 (KFVN)의 설치와 운영』. 군사, (92), pp. 65-101.
- 이신재. (2015). 『과월한국군의 작전지휘권 결정과정 고찰』. 군사, (96), pp. 283-322.
- 이한우. (2013). 『한국의 베트남 연구』. 한국동남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제 3 권 제 1 호 (통권 5 호), pp. 109-158.

- Ku Su Jeong. (2008). *Mối quan hệ Việt-Hàn trong và sau chiến tranh của Mỹ tại Việt Nam (1955-2005)*. 박사학위논문. Vietnam 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o Chi Minh, Vietnam.
- Song Jeong Nam. (2006). *Hàn Quốc tham chiến tại Việt Nam: Động cơ và bối cảnh*. 역사연구, Vol.5, pp. 42-54.
- Song Jeong Nam. (2007). *Kết quả tham chiến Việt Nam của Hàn Quốc: Chủ yếu về mặt kinh tế*. 역사연구, Vol.6, pp. 45-52.

## • 원문

-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월남관계 문서”. 1964-1975.
- 대통령 기록관. “박정희 대통령 시기 대공산권 정책 관련 문서”. 1964-1979.
-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 무역 진흥공사”. 1965 년 4 월 1 일.
- 대한민국 국방부.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 요청”, 1965 년 12 월 31 일.
- 대한민국 기획국. “한월 국민간의 이해 증진책”. 1967 년 12 월 26 일.
- 대한민국 기획국. “TASK FORCE” (대월 경제 협력). 1969.
- 대한민국 외무부.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집무자료, 1964 년 10 월 31 일.
- 대한민국 외무부. “대한민국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조약집무자료, 65/5, 1964.
- 대한민국 외무부. “주월대사관 경제협조 문서”. 1965-1975.

주월한국대사관. “제 3 차한월경제각료회담자료: 현지 예비회담 중심”. 1967.

Final Communique of the Ministerial Meeting on Vietnam of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Saigon. July 6, 1970.

Joint communique by His Excellency President Park Chung Hee and His Excellency President Nguyen Van Thieu. Seoul. 30<sup>th</sup> May 1969.

Statement by H.E Kyu Hah Cho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Fourth Ministerial Meeting of Troop-Contributing Nations on Vietnam. Saigon. 5<sup>th</sup> July 1970.

- 기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대통령 기록관. (1964-1975). “박정희 대통령 연설 기록”.

(<http://pa.go.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The Korea Herald. (1969). *Thieu Begins ROK Visit To Map Common Steps; Summit Talk Due Today*. Vol.242, (1969.5.28), pp. 1-4.

The Korea Herald. (1969). *Park, Thieu in Agreement On Joint Steps to Achieve Honorable Peace in Viet*. Vol.243, (1969.5.29), pp. 1-3.

The Korea Herald. (1969). *Park, Thieu to Issue Communique Today Setting War Stance*. Vol.244, (1969.5.30), pp. 1, 4.

The Korea Herald. (1969). *Park, Thieu Pledge To Boost Economic, Defense Cooperation*. Vol.245, (1969.5.31), pp. 1-2, 4.

Chấn hưng kinh tế (경제진흥). (1965). *Những hoạt động của ông Tổng ủy viên kinh tế và tài chính (Trương Thái Tôn) tại Đại Hàn và Trung Hoa*. Vol.456, pp. 4-6, 15.

Chấn hưng kinh tế (경제진흥). (1966). *Hội nghị các chuyên viên kinh tế Hàn - Việt*. Vol.462, pp. 3-5, 34.

Chấn hưng kinh tế (경제진흥). Lam Son. (1967). *Hội nghị Hàn - Việt*. Vol.526, pp. 3-5.

Chấn hưng kinh tế (경제진흥). (1970). *Khả năng tiếp nhận của thị trường Đại Hàn đối với những sản phẩm xuất cảng Việt Nam*. Vol.698, pp. 3-6, 33.

Sài Gòn báo (사이공 신문). (1967). *V.N.C.H. không chấp thuận cho Đại Hàn lập nhà máy nước đá tại Sài Gòn*. Vol.144, (1967.4.13-14), pp. 45-46.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Nguyễn Thiệu Hùng. (1967). *Cuộc hành quân "Oh Jak Kyo" yểm trợ chương trình xây dựng nông thôn của chính phủ Việt Nam Cộng hòa*. Vol.2, pp. 10-11.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 *Chính sách kỹ nghệ và chương trình đầu tư của Đại Hàn*. Vol.3, pp. 12-14.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 *Phái đoàn báo chí Việt Nam thăm viếng Đại Hàn*. Vol.4, pp. 6-9.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7). *Hòa Đa, áp đòir mới do quân đội Đại Hàn kiến tạo*. Vol.4, pp. 17.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Ngoại trưởng Đại Hàn Hyo Han Choi với vấn đề Việt Nam*. Vol.5, pp. 6-7.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Đại Hàn cứu trợ dân Việt Nam tỵ nạn cộng sản*. Vol.5, pp. 8-10.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Nền giao thương Hàn - Việt trên đà phát triển - Trung tâm Mậu dịch Đại Hàn mới khánh thành*. Vol.8, pp. 9-11.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Đại Hàn giúp dụng cụ cho Đài phát thanh Việt Nam*. Vol.14, pp. 13.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8). *Đoàn kiến tạo Đại Hàn xây hai Trường tiểu học*. Vol.14, pp. 14-15.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9). *Lễ trao tặng dụng cụ canh nông cho chính phủ Việt Nam*. Vol.15, pp. 13-14.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9). *Công binh Đại Hàn kiến tạo đường vòng đai chung quanh Sài Gòn*. Vol.15, pp. 15.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69). *Đoàn kiến tạo Đại Hàn khánh thành các "ngôi nhà của tình thương"*. Vol.20, pp. 15.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70). *Khánh thành Trung tâm Cộng đồng tại Nha Trang*. Vol.26, pp. 6-7.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Nguyễn Thiệu Hùng. (1970). *Cuộc công du của Thủ tướng Trần Thiện Khiêm tại Đại Hàn dân quốc*. Vol.28, pp. 1-6.
-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71). *Khởi công xây cất Trung tâm Y tế Hàn - Việt tại bệnh viện Chợ Quán*. Vol.33, pp. 6-7.



Tin tức Đại Hàn (대한뉴스). (1972). *Tổng thống Đại Hàn tặng dân chúng Thủ đô*

*Sài Gòn 1 công viên mang tên "Hòa bình" vật lưu niệm quý giá đầy ý nghĩa.*

Vol.36, pp. 14-16.

Tuần San Phòng Thương Mại Sài Gòn (사이공 상업 주간지). (1965). *Phái đoàn*

*Kinh tế Đại Hàn viếng thăm Phòng Thương mại Sài Gòn.* Vol.407,

(1965.5.28) pp. 5-6, 28.

**< Abstract >**

# **A Research on South Vietnam and South Korea Relations (1965~1975)**

**- Focusing on the South Korea's Initiative –**

**VO THI KHANH LAN**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Republic of Vietnam (South Vietnam) from 1965 to 1975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oreign polic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during such period. Different from the existed literature which merely focused on the Vietnam War or U.S. dominance in the relationship, it by examines the two countries' interactions in other less attended fields, such as mutual socio-economic cooperation. The thesis includes three main parts follow chronological order of South Korean-South Vietnamese

relations: (1) Prior to Sou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2) The honeymoon period; and (3) Prior to the fall of Saigon.

South Korea had shown its interest in developing diplomatic contacts with South Vietnam as soon as the Syungman Rhee government in order to escape strong American pressure through its foreign policy. By sending troops to the battle field in Vietnam, South Korea had a golden opportunity to enhance its alliance with the South Vietnamese government and in fact, the two countries enjoyed a honeymoon period along the Vietnam War. The alliance was tightened not only in terms of military support but also socio-economic cultural aspects. Moreover, unlike American efforts to prevent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Indochina, South Korea focused on its military alliances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Particular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South Vietnam were carried out in such a consistent manner. As shown in the study, South Korea chose an American gate to liberate its own foreign policy, which in turn helped them to take initiative in the relations with South Vietnam. From a broader point of view, President Park Chung-hee was trying to play a leading role in South Korean relations with not only South Vietnam but als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South Vietnam had been dismissed due to the fall of South Vietnam, but the historical lessons still remain. In

other words, any relationship will not be able to exist reliably by relying on the strength of the other.

**Keywords:** South Vietnam, Republic of Vietnam's relations, South Korea-South Vietnam relations, Republic of Vietnam's foreign relations, Vietnam War, Cold War alliance.

**Student Number:** 2015-25119